

이달의 초점

#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4개국 인식 조사 결과 분석

독일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 권영지·주보혜 |

일본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 최경덕 |

스웨덴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 신영규·남윤재 |

프랑스와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 이소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일본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sup>1)</sup>

Comparative Perceptions of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care in Japan and Korea

최경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 원고는 일본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양국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은 결혼 및 출산 의향이 한국보다 낮았으며, 가족 계획 시 건강과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한국은 경력 단절 가능성을 주요 고려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사 및 육아 부담에 있어 실제 부담 비율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담 비율 간 괴리가 있었으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양국 모두에서 과반이 공감하였다. 돌봄의 주체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사회와 가족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하였다. 한편, 한국은 일본보다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정책 활용 가능성은 낮게 인식되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결국,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 여러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이다. 향후 인구정책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 1 들어가며

저출산 현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2005년에 한국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총 네 차례 수립·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한 여러

1) 이 글은 최경덕, 오신휘, 조성호, 김명중, 김원경, 황남희. (2024).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6장 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한 것이다.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추세를 반등시키는 데 실패하였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출산율이 하락하여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출생아 수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지속 가능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수립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해온 주요 국가 중 하나로, 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197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1989년 1.57쇼크 이후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일본의 출산율은 반등하여 2015년에는 1.45명을 기록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가족관, 성 역할 인식 등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동아시아 국가로, 일본은 인식 비교의 타당성을 지닌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원고에서는 일본에서 실시한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sup>2)</sup> 결과를 분석하고, 동일한 문항으로 한국에서 실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향후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개요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는 일본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7월에 실시된 조사로, 인구 현상, 결혼, 출산 및 육아,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일본 인구정책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일본에서 실시된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문항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병행하였다.

표본은 지역, 성, 연령별 비례할당 방식을 통해 추출하였으며,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응답자 특성,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며, 각 영역별 세부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제2024-030호에 의해 IRB 승인을 받았다.

[표 1]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영역별 내용

구분	내용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li> <li>- 연령</li> <li>- 지역</li> <li>- 학력</li> <li>- 동거중인 파트너, 애인, 배우자 유무, 혼인상태</li> <li>- 자녀 유무, 자녀 수</li> <li>- 가구원 수</li> <li>- 경제활동상태</li> <li>- 가구소득, 경제적 생활 수준 인식</li> </ul>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의향</li> <li>- 출산 의향 및 계획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li> <li>- 가족계획(출산)시 고려 요인</li> <li>-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li> <li>- 일과 가사, 육아에 대한 성역할 인식</li> </ul>
가사 및 자녀 육아 부담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적절한) 가사분담 비율</li> <li>- (실제/적절한) 육아분담 비율</li> <li>-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li> <li>- 돌봄의 주체에 관한 견해</li> </ul>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변화에 관한 인식</li> <li>- 성공을 위한 요인 및 불평등에 관한 인식</li> </ul>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li> <li>- 일·가정 양립 정책 활용 가능성</li> <li>-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li> </ul>

출처: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0.

[표 2]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구분	구분		일본	한국
	남성	여성		
성별	남성		51.1 (1,278)	51.6 (1,291)
	여성		48.9 (1,222)	48.4 (1,209)
연령	20대(20~29세)		28.2 (704)	29.8 (744)
	30대(30~39세)		31.3 (783)	32.2 (804)
	40대(40~49세)		40.5 (1,013)	38.1 (952)
동거 파트너, 애인, 배우자 유무	있음		53.8 (1,345)	57.2 (1,430)
	없음		46.2 (1,155)	42.8 (1,070)
자녀 유무	있음		43.0 (1,074)	36.3 (907)
	없음		57.0 (1,426)	63.7 (1,593)
근로 여부	취업		77.0 (1,925)	76.8 (1,920)
	미취업		23.0 (575)	23.2 (580)

주: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일본과 한국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남성 비율이 여성 비율보다 근소하게 높고, 연령별로는 40~49세의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았다. 현재 동거중인 파트너, 애인 또는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일본과 한국 응답자의 대다수는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분석

#### 가.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먼저, <표 3>에서는 현재 동거중인 파트너, 애인 또는 배우자와 법률혼인 응답자들을 제외한 후 결혼 의향을 살펴보았다. 일본 응답자들 중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0%로, 한국에 비해

약 20%포인트 낮으며,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5.2%로, 한국과 유사하다. 다만, 한국과 일본 모두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들의 향후 선택에 따라 두 국가의 결혼 의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표 3>의 해석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한편, 일본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대학 재학 및 졸업, 동거/사실혼, 취업중인 경우 결혼 의향이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 4>에는 응답자들의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을 제시하였다. 일본 응답자 중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3%로, 한국에 비해 약 11%포인트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과 유사하였다.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 이혼·별거·사별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 비율은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약 2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향후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전체
일본	32.0	25.2	15.4	27.4	100.0 (1,492)
한국	52.9	24.2	5.4	17.6	100.0 (1,383)

주: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42.

**[표 4] 향후 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전체
일본	20.3	45.9	11.4	22.4	100.0 (2,500)
한국	31.2	47.3	5.9	15.6	100.0 (2,500)

주: 각 항목별 수치(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4.

결혼 및 출산 의향은 성별, 연령, 학력 등 응답자의 기본적인 특성 외에도 다양한 요인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일본 응답자들은 자녀 출산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데 더 동의할수록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낮은 경향이, 자녀 출산으로 인해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데 더 동의할수록,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데 더 동의할수록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이 클수록 자녀 출산 의향이 낮고,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결혼 및

출산 의향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sup>3)</sup>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를 살펴보았다. 일본 응답자들의 계획 자녀 수는 평균 1.96명으로, 한국에 비하여 0.22명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는 일본과 한국 모두 1.5~1.6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에는 가족계획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의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일본 응답자들은 본인의 건강(81.4%), 배우자의 건강(80.9%), 가정의 경제적 여건(77.8%) 순으로 중요(중요하다+매우 중

**[표 5] 계획 자녀 수 및 이상적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계획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일본	1.96	(507)	1.53	(2,500)
한국	1.74	(780)	1.58	(2,500)

주: 1) 각 항목별 수치(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2) 계획 자녀 수는 향후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이상적 자녀 수는 모든 응답자의 응답을 포함함.

출처: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3.

3)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0명으로 응답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 6] 가족(자녀 출산)계획 시 고려 요인

(단위: %,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가정의 경제적 여건	일본	3.6	2.5	16.0	33.0	44.8	100.0 (2,500)
	한국	0.1	0.6	5.0	31.8	62.5	100.0 (2,500)
본인의 건강	일본	1.9	1.6	15.1	36.0	45.4	100.0 (2,500)
	한국	0.0	0.2	4.5	35.8	59.5	100.0 (2,500)
배우자의 건강	일본	1.8	1.7	15.6	33.8	47.1	100.0 (2,500)
	한국	0.0	0.2	4.4	35.0	60.4	100.0 (2,500)
본인의 취업 상태	일본	1.7	3.6	24.5	36.2	34.0	100.0 (2,500)
	한국	0.2	1.4	11.0	35.9	51.6	100.0 (2,500)
배우자의 취업 상태	일본	2.5	4.0	27.2	29.8	36.6	100.0 (2,500)
	한국	0.7	2.7	16.1	32.6	47.8	100.0 (2,500)
주거 여건	일본	1.8	4.4	36.5	39.4	17.9	100.0 (2,500)
	한국	0.1	0.3	9.2	43.8	46.6	100.0 (2,500)
일·생활 균형	일본	1.6	1.9	21.7	44.4	30.4	100.0 (2,500)
	한국	0.0	0.9	9.4	42.7	46.9	100.0 (2,500)
경력 단절의 가능성	일본	4.8	10.8	44.9	27.0	12.5	100.0 (2,500)
	한국	0.7	3.7	23.3	41.8	30.4	100.0 (2,500)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일본	2.3	3.2	29.3	41.3	23.9	100.0 (2,500)
	한국	0.3	1.8	14.6	45.0	38.3	100.0 (2,500)
정부의 충분한 지원	일본	1.7	2.7	28.0	37.4	30.2	100.0 (2,500)
	한국	0.4	1.4	13.8	37.9	46.6	100.0 (2,500)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일본	1.7	1.9	27.2	38.8	30.5	100.0 (2,500)
	한국	0.2	0.9	12.2	36.5	50.1	100.0 (2,500)

주: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5.

요하다)하게 여겼으며, 경력 단절의 가능성(39.5%),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65.2%)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 응답자들이 <표 6>에 제시된 모든 요인들을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경력 단절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

는 비율 차이(32.7%포인트)가 양국 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경력 단절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율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은,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가 낮은 출산율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표 7] 자녀 출산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일본	2.2	5.1	28.6	41.4	22.6	100.0 (2,500)
	한국	0.5	2.4	11.8	48.0	37.4	100.0 (2,500)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	일본	2.6	6.0	33.9	36.8	20.7	100.0 (2,500)
	한국	1.0	3.1	21.6	45.7	28.6	100.0 (2,500)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일본	5.5	14.4	42.5	28.3	9.4	100.0 (2,500)
	한국	2.3	10.8	24.9	39.5	22.5	100.0 (2,500)
배우자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일본	9.0	18.9	41.8	23.6	6.7	100.0 (2,500)
	한국	4.8	15.8	28.0	37.1	14.3	100.0 (2,500)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	일본	4.4	11.7	50.2	26.9	6.8	100.0 (2,500)
	한국	7.6	20.8	36.8	26.8	8.0	100.0 (2,500)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	일본	3.6	7.1	47.7	32.0	9.6	100.0 (2,500)
	한국	3.1	8.7	35.5	39.8	12.9	100.0 (2,500)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일본	1.6	2.7	22.5	38.2	35.0	100.0 (2,500)
	한국	0.3	0.6	6.4	32.8	59.9	100.0 (2,500)

주: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6.

〈표 7〉은 자녀를 갖는 것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일본 응답자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데 동의(동의한다+전적으로 동의한다)하는 비율은 64.0%,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57.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응답자들은 일본에 비하여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배우자)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모두 높지만 이와 동시에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한국 응답자들은 자녀 양육을 통해 얻는 기쁨과 만족을 일본보다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나, 동시에 우려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출산율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여기서는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표 8〉에는 응답자들의 가사와 육아의 실제 분담 비율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담

**[표 8] 가사·육아의 실제 및 적절 부담 비율**

(단위: %, 명)

구분	가사				육아			
	실제		적절		실제		적절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본인 50% 미만(0~40%)	29.5	30.8	21.7	24.9	29.1	40.1	23.8	33.1
본인 50%, 상대 50%	18.8	23.7	34.7	43.4	22.7	14.9	36.7	37.4
본인 50% 초과(60~100%)	51.7	45.5	43.6	31.6	48.3	45.0	39.6	29.4

주: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8.

비율을 제시하였다. 일본 응답자들 중 가사와 육아를 상대방과 공평하게 부담하고 있다(본인 50%, 상대 50%)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8.8%, 22.7%에 그쳤으며, 본인이 상대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51.7%, 48.3%로, 더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약 2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7%, 36.7%로, 실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양상은 한국 응답자들에게서도 유사했다.

〈표 9〉에는 응답자들이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

에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는지 제시하였다. 일본 응답자 중 55.8%는 어려움을 느낀다(어려운 편이다+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14.5%는 어렵지 않다(전혀 어렵지 않다+어렵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연령, 학력, 혼인상태, 가구소득 등에 따라서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남성(47.4%)에 비해 여성(62.7%)에게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15%포인트 이상 높았다. 한국 응답자의 응답도 일본과 매우 유사하여, 양국 모두에서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과반을 기록하였다.

**[표 9]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전체
일본	2.7	11.8	29.7	41.2	14.6	100.0 (1,345)
한국	2.5	12.3	27.6	43.5	14.1	100.0 (1,430)

주: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9.

**[표 10] 돌봄의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	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	사회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	사회보다는 가족이 해야 할 일	주로 가족이 해야 할 일	전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일본	1.4	2.7	62.9	19.5	13.6	100.0 (2,500)
	한국	1.6	3.2	66.4	18.7	10.0	100.0 (2,500)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일본	1.7	5.5	70.3	15.2	7.4	100.0 (2,500)
	한국	3.7	12.4	66.6	11.8	5.4	100.0 (2,500)

주: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1.

다음으로는 응답자들의 돌봄의 주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표 10>에 따르면 일본 응답자들은 미취학 아동과 방과 후 시간 중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해 각각 62.9%, 70.3%가 사회와 가족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돌봄이 사회의 책임(주로 사회가 해야 할 일+가족보다는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응답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 응답자들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여 돌봄에 대한 책임을 사회와 가족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즉, 한국은 가족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의 역할을 함께 요구하는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 주도의 돌봄을 전제로 하되 사회가 경제적 지원 등의 형태로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다.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여기서는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표 11>에는 인구 변화와 관련된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제시하였다. 일본 응답자들 중 최근 출산율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다) 비율은 58.7%이며, 출산율 감소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에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56.8%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응답자들이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79.2%, 71.7%로 나타나 일본에 비해 각각 약 20%포인트, 15%포인트 높았다. 이는 한국

**[표 11] 인구 변화 및 그 영향력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일본	18.7	40.0	31.6	7.9	1.8	100.0 (2,500)
	한국	44.7	34.5	13.0	6.0	1.8	100.0 (2,500)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	7.2	16.8	42.2	25.6	8.2	100.0 (2,500)
	한국	10.3	20.5	33.4	23.9	11.9	100.0 (2,500)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	2.3	5.5	28.5	38.2	25.4	100.0 (2,500)
	한국	3.3	5.5	15.6	38.4	37.2	100.0 (2,500)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30.1	26.7	33.7	7.8	1.7	100.0 (2,500)
	한국	43.5	28.2	20.6	6.3	1.4	100.0 (2,500)

주: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2.

응답자들이 낮은 수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의 불공정 및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45.3%, 소득 격차가 너

무 크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과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55.4%, 56.3%으로 나타나 일본 응답자들의 불공정 및 불평등 인식 정도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러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 문항에 대한 비

**[표 12] 사회의 불공정 및 불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전체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	일본	12.5	32.8	41.0	11.6	2.1	100.0 (2,500)
	한국	18.1	39.3	33.0	9.0	0.6	100.0 (2,500)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일본	1.8	7.4	35.4	38.8	16.6	100.0 (2,500)
	한국	0.6	3.0	16.5	52.2	27.8	100.0 (2,500)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	일본	1.9	6.4	35.3	34.8	21.5	100.0 (2,500)
	한국	1.3	2.6	16.0	36.2	43.9	100.0 (2,500)

주: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4.

동의 및 동의 비율은 각각 57.4%, 80.0%, 80.1%로, 전반적으로 일본보다 불공정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도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사회의 불공정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삶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혼과 출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라.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표 13>에서는 인구 관련 정책을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았다. 일본 응답자들이 각 영역의 정책을 알고 있다(조금 안다+상당히 안다+매우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에 대한 수당

[표 13]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전체
임신, 출산 지원(의료보험 등)	일본	9.5	25.1	52.1	10.6	2.7	100.0 (2,500)
	한국	6.9	22.8	49.2	18.0	3.2	100.0 (2,500)
출산 수당 또는 물품(출산장려금 등)	일본	11.2	29.0	47.3	10.4	2.2	100.0 (2,500)
	한국	6.9	20.8	47.1	20.8	4.4	100.0 (2,500)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일본	8.7	20.9	53.0	14.1	3.4	100.0 (2,500)
	한국	4.4	15.6	49.2	25.1	5.6	100.0 (2,500)
어린이집 지원(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등)	일본	10.1	28.6	45.9	12.3	3.1	100.0 (2,500)
	한국	7.8	23.2	44.6	20.6	3.8	100.0 (2,500)
자녀에 대한 수당(아동수당, 가족수당 등)	일본	8.6	20.4	48.7	17.9	4.4	100.0 (2,500)
	한국	7.2	20.9	42.3	24.3	5.4	100.0 (2,500)
세금을 통한 지원(세금 경감)	일본	12.0	32.6	42.8	10.4	2.2	100.0 (2,500)
	한국	10.9	32.9	39.0	15.0	2.2	100.0 (2,500)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일본	19.5	36.3	34.6	8.0	1.6	100.0 (2,500)
	한국	8.1	22.4	43.9	21.0	4.5	100.0 (2,500)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일본	22.1	41.1	29.3	5.9	1.6	100.0 (2,500)
	한국	19.6	38.4	30.0	9.7	2.2	100.0 (2,500)

주: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6.

[표 14] 일·가정 양립 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어느정도 활용 가능함	대체로 활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하지 못함	모르겠음	전체
여성의 육아휴직	일본	9.1	20.1	35.9	10.6	5.0	19.2	100.0 (2,500)
	한국	6.0	17.1	36.3	24.8	10.2	5.6	100.0 (2,500)
남성의 육아휴직	일본	3.5	9.0	35.2	21.9	9.7	20.7	100.0 (2,500)
	한국	1.9	6.6	21.2	39.2	25.4	5.8	100.0 (2,500)
유연근로제	일본	3.7	9.0	32.7	23.4	10.0	21.3	100.0 (2,500)
	한국	2.7	7.8	26.1	35.8	19.5	8.1	100.0 (2,500)
출산휴가	일본	11.3	17.5	34.3	13.2	5.4	18.2	100.0 (2,500)
	한국	11.1	21.0	34.8	18.8	9.4	4.9	100.0 (2,500)
가족돌봄휴가	일본	3.7	8.6	29.6	22.6	11.1	24.4	100.0 (2,500)
	한국	3.4	7.5	22.0	34.5	22.6	10.0	100.0 (2,500)

주: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7.

(71.0%),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70.5%) 순으로 높고,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36.8%),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44.2%) 순으로 낮았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20~24세, 고졸 이하, 미혼, 무자녀인 경우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응답자들의 정책 인지도는 모든 영역에서 일본에 비해 높으며, 그 중 출산 및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9.9%). 이와 같이 한국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정책 인지도가 일본보다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 단순히 인지도 제고보다는 실질적 체감도와 정책의 효과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4>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정

책들 중, 직장생활과 관련된 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해당 문항은 응답자가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되, 본인의 활용 경험이 없다면 주변 지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일본 응답자들 중 29.2%는 여성의 육아휴직을, 28.8%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활용(매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두 제도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응답자들은 일본에 비해 정책 활용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를 제외한 4개 정책 모두 일본보다 활용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육아휴

[표 15] 정부의 예산 투입 규모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한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전체
일본	34.2	33.1	24.6	4.0	4.1	100.0 (2,500)
한국	51.7	27.6	15.3	3.2	2.2	100.0 (2,500)

주: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괄호 안 수치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출처: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최경덕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8.

직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현재 출산율 수준이 단순히 제도의 존재 여부를 넘어, 제도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5〉에는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 규모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였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대폭 늘려야 한다+조금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67.3%)에 비해 한국(79.3%)에서 높은데, 이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한국 응답자들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나가며

이 원고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양국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결혼 및 출산 의향이 한국보다 낮았으며, 가족 계획 시 고려 요인

으로 건강과 경제적 여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경력 단절 가능성을 주요 고려 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는 경력 유지에 대한 우려가 출산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사 및 육아 부담에 있어 실제 부담 비율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담 비율간 괴리가 있었으며, 여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은 양국 모두 과반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돌봄의 주체에 대해서는 사회와 가족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했는데, 이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되, 사회는 경제적 지원 등의 형태로 돌봄을 보조하는 형태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산율과 정부 대응에 대한 인식은 한국이 일본보다 부정적이었으며, 사회 불공정성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 또한 더 강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 또는 출산 장려를 넘어,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신뢰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모든 영역에서 일본에 비해 인지도가 높을 만큼 한국은 전반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정책 활용 가능성은 낮게 인식되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과제를 보여준다.

결국,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이다. 향후 인구정책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㉞

## 참고문헌

최경덕, 오신희, 조성호, 김명중, 김원경, 황남희. (2024).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Comparative Perceptions of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care in Japan and Korea

Choi, Kyong Duk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this article, I compare the perceptions of the Japanese and Koreans about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care, and examine how these two groups differ in their views on population issues. Marriage and fertility intentions were less prevalent among the Japanese than among Koreans. The Japanese regarded health and economic conditions as important factors in decisions about family formation and childbirth, while for Koreans potential career interruption was considered more significant. When it came to housework and childcare, there were discrepancies between the actual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and what was perceived as fair. More than half of participants in both Japan and Korea agreed on the difficulty of achieving work–life balance. Regarding childcare, a vast majority of participants in both countries viewed it as a responsibility shared by society and the family. Meanwhile, although Koreans were more aware than the Japanese of existing population policies, their perceived accessibility of available programs, especially paternal leave, was lower. Perceptions of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care are, after all, not so much about individual choices as they are shaped by social structures in which various conditions—work–family balance, possibility of career continuation, and policy effectiveness—act on one another in interdependent ways. In this light, population policies down the line will need to be pursued in parallel with efforts to initiate changes at the social–structural level.